



박소현의 섹.시.토크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 H는 남편에게 의미심장한 문자를 한통 보내기로 작정했다.

비 온다는 핑계로 술 약속 잡는 일을 미리 방지하는 동시에 오랜만에 비오는 밤을 흐뭇하게 보내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제 수영반 모임에서 들은 바에 따르면 남편들도 은근히 아내의 도발적인 문자를 즐긴다는 것이다. 믿기지 않는 사실이지만 그렇게 문자를 보내 남편을 유혹하는 일에 정통하다는 아파트 옆 동 친구의 말을 들어보면 그러했다.

‘자기 오늘 일찍 들어와. 나 조금 외로워.’ 이런 식의 상투적이고 뻔한 문자 한통이면 남편이 득달같이 뛰어다닌다고 했다. H는 속으로 그것도 다 평소에 그런 대화에 익숙해져 있어야 가능한 일이 아니겠나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나라고 못할 게 있나, 그런 생각도 들었다.’

결혼 한지 벌써 몇 년인데 내 쪽에서 구체적으로 신호를 보내고도 부끄러워 할 일도 아니었다. H는 내리는 가을비를 핑계로 남편을 유혹해 보리라, 이를 안다물고 휴대전화 폴더를 열었다.

그런데 막상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다. 옆 동 친구의 방법대로 ‘자기 오늘 일찍 들어와. 나 조

금 외로워.’라고 썼다가는 ‘외롭긴 뭐가 외롭나, 애들이랑 놀면 되지.’라고 답이 올 것이 뻔했다. 그렇다면 좀 더 직접적인 화법은 어떨까? ‘오늘 일찍 들어와. 씻고 기다릴게.’ 아, 이걸 너무 통속적이다. ‘나 지금 목이 달았어.’ 이걸 너무 스펀지처럼 쓰나?

이런 저런 유치한 문자들을 궁리하다보니 H는 문득 남편과 자신 사이에 서로의 욕구를 표현



하는 마땅한 용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은 말보다는 주로 행동으로, 돌아누운 와이프를 슬쩍 더듬는 행위로 자신의 의사를 대신하고, 어쩌다 술 한 잔 하고 말로 할 때도 보통 ‘거시기’, ‘응응응’ 따위로 나타내곤 했다. 한번은 어디서 ‘봉가봉가’라는 말을 듣고 와서는 이 국극불명의

말을 쓴 적도 있었다. 서로 몸만 잘 맞으면 되는 것을 굳이 구체적인 용어로 정리해야 할 필요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거시기’나 ‘응응응’ 말고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새삼스러웠다.

결국 그날 고민만 하다 문자보내기를 포기해 버린 H는 다음날 수영반 모임에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놨다. 남편들은 굳이 말이 필요할 때,

“외롭다는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눈치 빠른 남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대체 어떤 말로 신호를 보내는지 궁금했던 것이다.

“우리로 그냥 거시기로 통해. 오늘밤에 거시기나 할까? 하고.”

“어머, 우리집도 거시기인데.”

“난 오늘밤에 한가하다고 하는데, 한번은 한가

하다고 했더니 남편이 한가하면 마늘이나 까르고 해서 대관 싸운 적도 있어.”

“우리 남편은 몸 좀 풀자고 하는데.”

집집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대세는 역시 ‘거시기’로 가고 있었다. 그때 제일 나이 어린 새댁이 한마디 거들었다.

“저희는 그냥 오늘 섹스하자고 해요.”

새댁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다들 좀 어색한 눈길로 새댁을 바라보았다. 거시기나 섹스나 결과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어쩔지 민망해 하는 눈치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거시기’나 ‘응응응’ 같은 출처가 불분명한 말들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생각들도 하는 것 같았다.

어쨌든 이들이 자났지만 H는 여전히 문자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 뭐라고 써야 할지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차라리 이모티콘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숫자로 표현해 놓으면 좀 덜 민망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몸과 마음이 원해서 하는 것인데 왜 이거저거 다 신경 쓰면서 이렇게 불필요한 걸잡는 배야 하는 걸까? 아니 다른 건 차차치고, 그냥 오늘 좀 외롭다는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눈치 빠른 남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연애 칼럼리스트〉

최근 세계적 패션 포토그래퍼 질 벤시몽(Gilles Bensimon)과 화보 촬영을 한 영화배우 손예진.



최근 세계적 패션 포토그래퍼 질 벤시몽(Gilles Bensimon)과 화보 촬영을 한 영화배우 손예진.

뉴스퀴즈

82. 전국 16개 시·도 및 해외동포 선수·임원 등 3만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체육행사가 오는 10월 8일부터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에서는 지난 1993년 제 74회 대회 개최 후 14년만에 열리는 것으로, 불거리·먹거리·즐거거리가 가득한 종합문화축제로 치러질 예정이다. 무슨 대회일까요?

- ① 전국체육대회 ② 소년체육대회 ③ 도민체육대회 ④ 장애인체육대회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 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상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연락처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9월 21일(음 8월 11일 戊午)

子 36년생 좋은 일과 연결될 수 준비를 잘하라. 48년생 본인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60년생 인성은 지금부터, 멋지게 행동하라. 72년생 흥분은 금물이나 생각이나 행하라. 84년생 가정의 평안이 있다. 행운의 숫자: 06, 41

丑 37년생 모든 일에 신중하고 욕심을 버려라. 49년생 실물수는 있으나 재물이 들어온다. 61년생 새로운 일이 생기니 전후좌우를 살펴 가라. 73년생 수족의 불편이 나올 수 있고 주변이 어지럽다. 85년생 오늘 할 일을 미루지 마라. 행운의 숫자: 13, 27

寅 38년생 주변의 변화가 손재로 들어오니 신중하게 처신하라. 50년생 아내의 건강도 살펴봐라. 62년생 직업과 돈, 남편, 자녀를 까지도 조심해야. 74년생 뒤를 한번 돌아보면 실수를 면한다. 행운의 숫자: 23, 43

卯 39년생 불연이민 시비에 휘말린다. 51년생 건강을 위한 꾸준한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라. 63년생 재사가 불리하다. 75년생 짐것 덜어보면 결과도 좋으니 마음껏 활동하라. 행운의 숫자: 02, 32

辰 40년생 아내와 이해가 부족 되니 대화가 필요하다. 52년생 협조자가 나타나지만 조심성 있게 판단하라. 64년생 흥분보다 깊이 더 많이 안심하고 보라. 76년생 새로운 변로 재물이 생길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18, 42

巳 41년생 누명 구설 등으로 불리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53년생 총화기가 발동하면 망신수가 발생한다. 65년생 재물과 처에 시달림이 있을 수 있다. 77년생 황재수가 있고 노력이 비해 대가 증가된다. 행운의 숫자: 10, 28

午 42년생 슬픔도 기쁨도 한꺼번에 나타난다. 54년생 어부지기가 있지만 결과는 좋지 않다. 66년생 이색사람과 금전거래는 가능한 편이라. 78년생 소탐대실,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하라. 행운의 숫자: 12, 37

未 43년생 큰 것을 취하고 작은 것은 내어주라. 55년생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는다. 67년생 귀인을 만나서 도움을 받지만 마무리가 자신이 될까 하라. 79년생 부모에게 효도도 중요하나 자식교육은 미래의 행복이다. 행운의 숫자: 08, 36

申 44년생 공짜 술에 범이 나니 절대로 가지마라. 56년생 상황에 따라 시비 도난 분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68년생 뜻하지 않은 돌발 사태에 지혜롭게 대처하라. 80년생 새로운 일을 계획하나 쉽지않은 일이다. 행운의 숫자: 24, 39

酉 45년생 권한 사람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니 예의를 지키라. 57년생 무준의 부모도 예의를 지키면 사람은 두 배가 되리라. 69년생 자자랑보다 동료들 칭찬하라. 81년생 이성을 만나보라 좋은 진행이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20, 16

戌 46년생 가족과 떨어져 살 일이 생길 수도 있다. 58년생 나에게 불리한 일을 내 탓으로 생각하면 만사가 편안하다. 70년생 덕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 자신의 노력 부족이다. 82년생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때야 할 때다. 행운의 숫자: 22, 33

亥 47년생 지출도 투자로 생각하라. 59년생 부모, 형제의 도움으로 새 생활이 시작 된다. 71년생 작은 일도 꼭 성공하겠다는 각오로 추진하라. 83년생 애인과 즐거움은 있으나 마무리가 서운하다. 행운의 숫자: 15, 34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더마플라스트 밴드 DermaPlast.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제품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검색절정 키워드

텔런트 최진실의 전 남편 조성민(34·한화 이글스)의 재혼 상대자를 찾아라. 네티즌들의 끈질긴 인물 찾기가 시작됐다.

조성민이 2003년 최진실과의 이혼 공방 당시 ‘조성민의 연인’으로 주목되기도 했던 3살 연상의 삼모(37)씨와 2005년 7월 혼인 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인터넷에서는 삼씨가 누구인지 알아내려는 네티즌들이 잇따르고 관련 검색어가 상위권에 올랐다.

지난 2002년 병역 파문으로 국내 가요계를 떠났던 가수 유승준의 7집 발표 소식도 네티즌들

‘조성민의 연인’을 찾아라

의 찬반 양론이 엇갈리며 무더기 클릭 세례를 받았다.

지난 2001년 6집 이후 6년만에 나온 앨범 제목은 ‘리버스 오브 YSJ(Rebirth of YSJ) 한국판’. 앨범 발매 소식이 전해진 뒤 인터넷에서는 ‘앨범 낸 뒤 분위기가 좋으면 컴백하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떠보는 것’이거나 ‘앨범을 내든지 말든지 반대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음주 행선지 사고를 낸 뒤 연예계를 떠났던 김상혁(24)도 최근 컴백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

해지면서 미니 홈페이지를 찾은 네티즌들로 화제가 됐다.

이의 희귀병인 ‘일발성 왜소증’을 앓아 키 66cm, 체중 4.5kg에 불과한 ‘인형 소녀’ 케나디 주르망 브롬비(5·Kenadie Jourdin-Bromley)도 최근 모습의 사진 등을 담은 인터넷 홈페이지가 공개되면서 찾는 이들이 많았고 텔런트 김윤경(28)의 깜짝 결혼 계획 공개 소식이나 슈퍼모델 출신 이종희(35) 결혼 발표, 영화배우 손예진(25)의 화보 촬영 소식 등도 검색 빈도가 높았다. /김지영기자 dok2000@kwangju.co.kr

바둑소식. 김수용 2단, 주형욱 4단 꺾어. 김수용 2단이 20일 스카이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11기 SK가스배 신예프로10강전 B조 리그에서 주형욱 4단을 백 불계로 제압, 본선리그를 마쳤다. 김 2단이 4승1패로 리그를 마감함에 따라 B조 리그 순위 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배준희 2단이 리그를 4승1패로 끝낼 가능성이 많아 동률 제2국이 점쳐지고 있는 것. 이 대회는 모두 12명이 출전해 A, B 리그 1위를 차지한 기사까지 3번기로 최종 패권을 가린다. 나머지 동 순위 기사들끼리는 순위결정전을 치러 10위까지 서열을 정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바둑소식. 김수용 5단 3위 입상. 김수용 5단이 3연성을 펼쳐며 우편에 큰 세력을 쌓자 유흥주 5단은 이를 너무 의식하여 백 44로 쳐들어 가고 70,72로 손해를 자초하는 등 평상심을 잃고 있다. 이런 수로는 좌변을 지키고 승부를 길게 가져가야 했다. 상변의 패를 이겨서는 건바둑이 아닌가 했으나 하변의 접전에서 김수용 5단이 흑 175, 177, 179의 묘착 3연타를 터뜨리며 백 대마를 잡고 통쾌한 승리를 거둔다. 김수용 5단의 안락이 돋보인 한판이다. 흑 199수 끝. 흑 불계승.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김수용 2단, 주형욱 4단 꺾어. 김수용 2단이 20일 스카이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11기 SK가스배 신예프로10강전 B조 리그에서 주형욱 4단을 백 불계로 제압, 본선리그를 마쳤다. 김 2단이 4승1패로 리그를 마감함에 따라 B조 리그 순위 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배준희 2단이 리그를 4승1패로 끝낼 가능성이 많아 동률 제2국이 점쳐지고 있는 것. 이 대회는 모두 12명이 출전해 A, B 리그 1위를 차지한 기사까지 3번기로 최종 패권을 가린다. 나머지 동 순위 기사들끼리는 순위결정전을 치러 10위까지 서열을 정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997> How's the weather? 날씨에 어때요? A: How's the weather in Seoul? B: It's raining. What's the weather like in Busan? A: It's pretty hot. B: Really? It's cool here. A: How long has it been raining there? B: Since this morning. A: 서울 날씨는 어떨습니까? B: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부산날씨는 어떨습니까? A: 매우 덥습니다. B: 정말입니까? 이곳은 선선한데요. A: 비는 얼마나 오래 내리고 있습니까? B: 아침부터 내리고 있습니다. \* It's sunny : 맑습니다. \* It's foggy : 안개가 끼어있습니다. \* It's freezing : 얼어붙을 것 같습니다. \* It's snowing : 눈이 내립니다.

오하오우 니혼고 <997> ジャンケンで決(き)めよう。 가위바위보로 정하자구 A: 料理(りょうり)を作(つく)ったのは私(わたし)だから、洗(あら)いものは任(まか)せていいかな。 B: 何(なに)をおっしやってるんですか。俺(おれ)も手傳(てつた)ったんだから。ジャンケンで決(き)めよう。 A: 最初(さいしょ)はグ! ジャンケンポン! B: やった! また勝(か)っちゃったよ。悪(わる)いね。今日(けふ)も頼(たの)むよ。 A: 요리를 한 것은 나니까, 설거지를 맡겨도 될까? B: 무슨 말을 하시구? 나도 도왔는데, 가위 바위 보로 정하자구. A: 가위 바위 보! B: 앗봐, 또 이겨 버렸네, 미안해서 어쩐지? 오늘도 부탁해. 最初(さいしょ)はグ: 가위 바위 보를 할 때 일본에서는 특이하게 처음으로 모두 주먹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最初(さいしょ)はグ!ジャンケンポン! 이라고 말하면서 가위 바위 보를 합니다.

니하오 쑹구위 <187> 您(您)先来 당신이 먼저 드세요 A: 来, 尝尝地道的上海菜。 Nín xiān lái. B: 您(您)先来。 Nín xiān lái. A: 您(您)先来吧。凉了就不好吃了。 Nín xiān lái ba. B: 那, 咱们(咱们)一起来吧。 Nà, zǎmen yìqǐ lái ba. A: 저 고향, 본고장의 상해 음식들 드셔보세요. B: 먼저 드세요. A: 먼저 드세요. B: 그럼, 우리 함께 먹읍시다. 尝尝(chángcháng) 맛보냐 地道(dìdao) 명실지외, 본고장의 凉(liáng) 식디

한자 이야기 <614> 麒麟兒(기린아) 기린 기, 기린 린, 아이아 기린아(麒麟兒)는 ‘기린(麒麟)’에 ‘아이 아(兒)’가 붙은 말이다. 기린을 백수(百獸)의 영장(靈長)으로 보기 때문에 걸출한 인물을 비유할 때 사용한다. 원래 기린아는 ‘축망받는 아이’라는 뜻이었지만, 뒤에 ‘뛰어난 젊은이’를 일컫게 되었다. 기린은 상상의 동물이다. 사슴의 몸에 말의 발굽과 소의 꼬리를 갖고 있으며 온몸에 영롱한 비늘이 덮여 있으며, 성인(聖人)이 태어날 때 나타난다는 전설이 있다. 또 기린은 산의 풀을 밟지 않을 뿐 아니라, 머리에 돋은 뿔이 살로 되어있어 다른 짐승을 해치지 않는 인자한 동물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용, 봉황, 거북이와 함께 상서로운 영물의 하나가 되었다. 따라서 신라시대에는 기린의 문양을 벽화에 넣은 건축에 이용하기도 하고, 고려시대에는 왕의 후유군의 깃발에 기린 문양을 수놓기도 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왕족(王族)만이 사용하는 문양으로서 대군의 흉배에 금사(金絲)로 수놓아져 왕실의 권위와 품격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기린아’는 주로 ‘시대의 기린아’, ‘재계의 기린아’, ‘문단의 기린아’처럼 어떤 분야의 뛰어난 젊은이를 ‘기린아’로 지칭한다.